



강진 최제영



곡성 김광휘



광양 김충권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신안 박응식

‘장성군 엘로우 존’ 인기몰이

젊은 농업인과 엘로우가 만나 미래 농업의 비전을 보여줬다

지난 10월 28일부터 전남도 농업기술원에서 11일간 열리고 있는 2017 국제농업박람회에서 장성군 홍보관이 농업의 젊은 에너지와 비전을 담아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장성군은 이번 박람회에 참여하면서 장성 농업을 보여주는 홍보관을 ‘엘로우프루트존’ ‘청년창업 존’ ‘대대손손 기업존’ ‘밥엔찬 존’으로 꾸몄다.

‘엘로우프루트존’은 장성의 대표 농산물인 사과와 감, 토마토 등을 소개하는 코너로 ‘엘로우시티’와 연계한 컬러마케팅을 과일에 적용해 컬러풀하게 꾸몄다.

‘청년창업 존’은 농업에 청년농업인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접목된 창업상품을 보여주고, ‘대대손손 기업존’은 2~3대가 농업 분야에 함께 종사하면서 가업을 이어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기업의 상품을 전시하고 있다.

농업박람회 홍보관, 관람객들 눈길

농업의 젊은 에너지·비전 담아내



‘밥엔찬 존’에는 장성군 마을반찬사업단과 천연조미료사업단이 직접 만든 삼계가공 식품과 각종 밀반찬 등을 전시했다.

군 관계자는 “장성군은 청년 농

업인의 열정이 미래 농업의 원동력 중의 하나로, 이번 박람회를 통해 청년이 성공하는 장성의 농업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농업에서 꿈을 키우기

시작한 농업인의 자녀들을 청년연어로 보고 아들을 끌어안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영농 유망주들을 모아 멘토-멘티로 연결하는 문화행사를 갖고 서로 소통하고 도움을 주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왔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농촌이 침체를 겪는 가장 큰 원인은 새로운 농업을 이끌어갈 젊은 인력이 없다는 것과 그들에게 충분한 희망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라며 “장성의 미래 농업인에게 에너지와 충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보관 바로 옆에는 장성의 농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판매관도 운영중이다. 각종 잼과 주스, 조청, 발효식품과 장아찌, 8종에 달하는 발효효소 등 건강간 농산물로 만들어진 가공식품 50여종이 판매되고 있다.

장성=반정모 기자

보성군,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

오는 30일까지

보성군은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군민이 직접 제안하는 ‘특별 아이디어 잡(JOB)자!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를 30일까지 접수한다.

공모는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일자리 발굴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되며,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있는 분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청년·여성·중장년·노인·장애인 등 대상별 일자리 ▲산업·사회·문화·환경 등 지역 맞춤형 일자리 ▲공공서비스 확충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기업유치 및 고용환경 개선 ▲기존 일자리 정책 개선 등이다

응모는 군 홈페이지(www.boseong.go.kr) 공지사항 또는 공고·고시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군 경제산업과 지역공동체계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심사 결과는 12월중 개별 통보 및 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5명에게 각각 상금 100만원, 50만원, 10만원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군 일자리 정책에 실제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구례군, 산수유 지리적표시특산물 홍보

‘코엑스 푸드위크 2017’서 산수유 우수성 알리

구례군은 지난 10월 28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코엑스 푸드위크 2017’ 지리적표시특산물 홍보관에서 구례특산물인 산수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에 적극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산수유 생산자 단체인 ‘구례산수유영농조합법인’과 산수유 제품 생산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지리산특용작물재배법’이 참여하였으며, 산수유로 만든 제품을 전시하고 산수유의 효능을 적극 홍보하였다.

지리적표시제란 상품의 품질과 특성 등이 본질적으로 그 상품의 원산지인 산수유를 생겼을 경우 그 원산지의 이름을 상표권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2008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거 지리적표시 제15호(임산물)로 구례산수유가 등록된 바 있다. 산수유 마케팅에 지리적표시제를 적극 활용코자 구례산수유

영농조합법인과 구례야생화연구소가 농립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지원을 받아 산수유 지리적표시 마크를 활용한 소포장제 및 포장디자인 개선을 위한 컨설팅 중이다.

군 관계자는 “산수유 생산자 단체가 산수유 포장제에 지리적표시 마크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산수유 원물 포장기술을 표준화하면 산수유 건피 유통구조 개선되어 산수유 판매의 안정적인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수유는 11월에 수확하여 씨앗을 제거한 과육을 건조하여 사용하며, 첫맛은 시고, 끝 맛은 쓰고 짙은 특성이 있다. 다양한 유기산과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교차가 심한 계절에 산수유를 차로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 민간에서는 배뇨와 관련한 증상에 주로 이용하였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곳 ‘고흥분청문화박물관’ 개관

최초 ‘두원 원석’ 및 금동관모·신발의 특별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고흥, 국내 최대 분청사기 도요지인 운대리 가마터에 ‘고흥 분청문화 박물관’이 지난달 31일 성황리에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진 문화재청장을 비롯하여, 박진규 前문화부 차관, 국공립박물관 관계자 등 내·외빈 2,000여 명이 참석해 찬란한 역사를 간직한 분청문화 박물관의 개관을 축하하며 빛내주었다.

박병중 군수는 개관사에서 “앞으로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은 분청사기를 비롯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한 데 아우르는 살아 있는 교육의 장이자, 새로운 관광 전략지로 ‘고흥관광 2천만 시대’를 앞당기는 견인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이 우리 군의 활기찬 내일, 발전된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바란다”고 전했다.

개관을 기념하여 특별전시실에 74년 만에 고흥으로 돌아온 ‘두원 원석’이 국내 박물관에서는 최초로 2018년 2월 28일까지 전시된다.

또한, 고흥군에서 출토되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물들 중 포두면

안동고분 출토 금동관모·금동신발·청동거울, 풍양면 출토 모자곡옥, 신여량 장군 상가교서, 밀부유서 등은 고흥군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할 만한 일품 보물들로 11월까지 전시할 예정이다. 다양한 전시품들과 함께 관람객을 맞을 것이다.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은 지상 3층 9,723㎡의 규모로 2014년 8월 착공을 시작으로 2017년 현재 5개의 전시실에 약 1,200여 점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으며, 설화와 분청사기를 테마로 조성된 분청문화공원은 고흥군민과 관람객을 위한 자연 쉼터의 휴식 공간이 되고 있다.

분청문화박물관은 역사문화실, 분청사기실, 설화문화실, 기획전시실, 특별전시실 등 5개의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다. 역사문화실은 유구한 역사 속의 고흥을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소개하는 공간으로 고흥의 현재와 유사 깊은 전통문화가 공존하는 전시실로 선사·고대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들과 불교, 임진왜란 관련 유물 등이 전시되어 있다.

분청문화박물관을 대표하는 분청사기실은 운대리 분청사기 요지(사적 제519호, 전남기념물 제80호)소개와 그동안 운대리 요지(1호, 2호, 7호, 14호, 15호)발굴 후 출토된 유물과 복원 재현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함평군, 오감발달 놀이교실 운영



함평군보건소는 영아의 발달단계

에 맞춰 인지, 정서, 언어, 사회성을 계발하는 오감발달 놀이교실 ‘오(5)터치! 오감발달 놀이교실’을 2회에 걸쳐 실시한다.

이 교육은 10~24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비눗방울 등 다양한 교구를 이용한 신체활동, 다양한 색상의 소재와 재료를 활용한 놀이로 아이

와 부모가 함께하는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10월30일엔 유아의 신체와 두뇌 발달을 촉진하고 엄마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오감을 자극하는 통합놀이교육을 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강진옥(42)씨는 “대도시에 비해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다양한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지역에서 접할 수 있어 좋

다”며 “무엇보다 아이가 시선을 맞추며 웃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이 교육은 오는 6일에도 열릴 예정이다.

박성희 보건소장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함평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함평=김광춘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아제는 평창 상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 올림픽 2018. 02. 09~02. 25(17일간)
- 패럴림픽 2018. 03. 09~03. 18(10일간)

Pyongyang 2018 PyeongChang 2018